



남원소방서, 숙박시설 실전형 현지적응훈련 실시

남원소방서는 지난 18일, 남원시 인월면의 반야모텔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위한 '숙박시설 실전형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이러한 숙박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난 발생 초기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 능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



부안 행안면, 주요 도로변 맨드라미 꽃길 조성

부안군 행안면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스포츠파크 사거리부터 순환북로 사거리까지 4km 구간에 6만주 맨드라미 꽃길을 적십자봉사회와 자원봉사 40여명 회원들이 동참해 조성했다고 밝혔다. 맨드라미는 뜨거운 여름철에 강한 생명력과 화려한 색깔을 나타냄으로 이곳을 지나는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생생한 활력과 볼거리를 선사하게 된다.

고창경찰서, 소년보호처분 6호 청소년 교육 실시

고창경찰서(서장 태기준)는 지난 18일 대인위탁교육시설 희망샘학교에서 소년보호처분 6호 대상 청소년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소년보호처분 6호는 소년원 송치 전 단계의 보호처분으로, 희망샘학교에 위탁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 되었다. 이날 교육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건전한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과 재발방지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였다.

순창군, '함께 걷고 함께 나누는 실천 프로젝트' 시동

'2026년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맞이... 양지천 길에서 하천 보호 위한 플로깅 진행

순창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기자)는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와 함께 지난 19일 순창을 양지천 길에서 '2026년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맞이 '순창군 함께 걷고 함께 나누는 실천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하고, 일상 속 봉사활동 확산을 위한 실천 선언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도민 참여형 생활 자원봉사 확산을 위한 '10대 자원봉사 테마 릴레이 실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마이크로 자원봉사(Micro Volunteer)'를 기반으로, 하천 보호를 위한 플로깅(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었다.



맞은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고영호 이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도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원봉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이크로 자원봉사 활동"이라며, "도내 전역에서 릴레이 실천을 이어가며 환경보호와 나눔이 공존하는 전북형 자원봉사 모델을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기자 순창군 자원봉사센터장은 "양지천 길에서 진행된 이번 활동은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밀착형 환경 실천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하천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 실천이 일상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생활 속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농기센터, 영농철 농업인 일손돕기 '구슬땀'

남원농업기술센터 원예농산유통과가 인월면에서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하며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힘을 보탤다. 이번 일손돕기는 포도 재배 농가의 순지르기 작업과 토마토 재배농가의 하우스 경지정리 작업을 지원하며 적기 영농 추진을 지원, 포도 순지르기는 불필요한 신초를 제거해 양분 소모를 줄이고 과실 품질을 높이는 중요한 재배관리 작업이다. 토마토 하우스 경지정리는 작물 생육환경 개선과 작업 효율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직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농업인들과 함께 현장 지원에 나섰다. 최선영 원예농산유통과장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원활동을 통해 농업인과 함께하는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부안군 백산면·보건소 직원 20명, 농촌 일손 지원

부안군 백산면과 부안군 보건소 직원 20여명은 지난 19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 돕기는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작업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직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상추정식 작업에 힘을 보탤다. 백산면 관계자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일손 돕기 인력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협 남원시지부, 이영면 포도농가 일손 돕기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김중주)는 지난 18일, 이영면 일대리 포도농가(농장주 이영수)에서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 돕기에는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김중주), 농신보남원센터(센터장 이성진), 지리산농협(조합장 정대환) 임직원 및 이영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불지씨우기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지리산농협 정대환 조합장은 "적기 영농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김중부 시 지부장은 "바쁜 일정에도 참여해 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1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김제시는 김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고선옥)가 지난 19일 센터 다목적 강당과 요촌어린이공원 숲놀이터 일원에서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며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센터 개관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센터를 이용해 온 영유아 가정과 지역주민, 관계기관 내빈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내 보육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석해 개관 1주년을 축하했다. 1부 기념식은 센터의 지난 1년간의 발자취를 담은 기념영상을 시청하며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축사와 기념촬영, 개관 1주년 축하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마술공연과 김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노래를 부른 어린이 가수 한수정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참석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2부 행사는 센터 앞 요촌어린이공원 숲놀이터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보물탐험대'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참가 가족들은 곳곳에 숨겨진 보물쪽지를 찾으며 협동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다양한 기념품을 받으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고선옥 센터장은 "센터 개관 이후 지난 1년 동안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직원 모두에게 신뢰받는 육아 지원 거점기관으로서 더욱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증양지사 010-9088-6674 남원지사 632-3996 일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6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팔복지사 253-6844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6 정읍지사 536-3787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8329-6677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호지지사 010-6645-9936 익산지사 658-9823 부안지사 010-2426-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인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